

② 도시와 어촌의 교류 실태 및 사례 ②

바다를 품은 어촌으로 활성화 – 시마네정

1. 시마네정의 개요

시마네정은 시마네현(島根縣)의 북동부에 있는 시마네반도의 중앙부, 현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배후에 기타야마(北山)산맥을 이루는 미사까야마(三坂山), 초스이야마(澄水山), 오오히라야마(大平山)를 안고, 전면은 일본해를 향하고 연장 50km에나 달하는 해안선은 거센파도에 의해 만들어진 기암·동굴이 수 없이 있고 「카가(加賀)의 쿠케도(潛戶)」「타코(多古)의 칠혈」「수수바다의 세탁암」 등 오래전부터 관광명소로서 친숙해져 있다. 또 날씨가 좋은 날에는 멀리 오키도(隱岐島)를 볼 수도 있고 현내에서도 굴지의 관광명소로 자태를 자랑하고 있으며, 그 해안부 전역이 오오야마오키(大山隱岐)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마네정의 역사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정내 각 곳에서 수 없이 많은 토기 등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이미 죄몽(繩文)시대부터 집락이 존재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733년의 「이즈모(出雲) 풍토기」에는 사타노오오카미(佐太ノ大神)의 탄생지로서 소개되었고, 카마쿠라(鎌倉)시대에 들어

서는 오키(隱岐)로 귀양보냈던 고다이고(後醍醐) 천황이 표착한 곳이며, 또 에도(江戸)시대에 북전선(北前船)의 왕래로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던 곳이기도 하다.



〈사진-1〉 시마네정의 풍경

시마네정의 총인구는 2002년 4월 1일 현재 4,564명으로 매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31%로 극히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군부정촌(郡陪町村) 특유의 과속화·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드·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분야로 산업진흥 혹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주환경의 기반정비로서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 및 농업집락환경정비사업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하수도시설정비사업은 2004년내에 전 정내 보급을 지향하고 있으며 2001년도말 보급률은 77.7%에 까지 달하고 있다. 이것은 생활환경의 정비라는 면뿐만 아니라 하천·해양오염·환경오염의 방비라는 관점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2〉 버섯 이야기

2. 산업의 형태

시마네정에는 37.23평방km의 면적이 있으나, 약 85%를 산림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평지가 없고, 큰 하천 등도 없기 때문에 기업 등의 유치는 봉제업 등 한정되어 있다. 또 논이나 밭 등의 농지면적도 적고, 그것에 의지하는 전업농가도 없다. 그러나 마을면적의 대부분을 점하는 산림을 이용하여 표고버섯재배가 마을내 전역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표고버섯을 시마네정의 특산품으로 하는 노력으로서 상수리나무·졸참나무 등의 원목에 표고버섯의 균사를 이식하여 생산하는 종래의 방법이 아닌 텁밥에 표고균사를 섞어서 블록상태로 굳힌 「균상 표고버섯」 재배기술의 확립과 재배하우스 등의 시설정비를 해오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된 「균상 표고버섯」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그리고 2001년 1월부터는 가정에서도 간단히 표고버섯재배를 할 수 있는 「버섯 이야기」라는 상품의 개발에 성공하여 발매 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보기에도 즐겁게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어서 당초의 예정판매수를 훨씬 상회하는 호평을 얻고 있다.

한편 시마네정에는 평지가 적은 반면 길게 뒤얽힌 해안선이 있고 7개의 어항을 가지고 있다.

마을 내 어업의 형태는 5개의 경영체에 의한

정치망어업을 주축으로 하여 한줄낚시어업, 자망어업, 해초채집 등 모두 연안어업이나 어종은 풍부하여 도미, 방어, 전갱이, 부시리, 오징어를 비롯하여 다종에 이르고 있으며, 패류도 소라, 전복, 성게 그리고 양식에 의한 굴과 미역도 생산되고 있다.

근래의 수산업에 대해서는 해양자원의 고갈화와 가격폭락의 영향을 크게 받아 1997년 8억9천9백만엔을 정점으로 하강하는 경향이고 2001년에 시마네정 전체의 양류액은 5억9천5백만엔으로 정점때의 3분의 2까지 감소하고 있다.

2001년 정치망어업의 양류액은 3억2천백만엔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정치망어업의 동향이 시마네정의 수산업 전체의 융성을 결정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근래 양류액의 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치망어업, 그리고 어업 전체 존망의 위기를 우려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이다.

3. 수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① 재배어업의 추진

포획하는 어업만으로는 안전한 경영을 도모하

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식어업으로의 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도미, 넙치, 방어 등의 어류 양식은 시마네정에서도 종래부터 행해져 오고 있지만, 노력이나 시설면에서 보면 사업수입이 올라가지 않을 뿐 아니라 해양오염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이고 적은 노력으로 안정한 사업수입이 확실한 전복에 대한 해면에서의 양식시험에 힘을 쏟고 있고 이제는 출하를 눈앞에 두고 출하장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동시에 전복의 종묘에 대하여도 해면에서 생산시험을 하고 있고, 적지만 까막전복, 씨이볼트전복 2종류의 생산에 성공했다.

아울러 시마네정에서는 이전부터 미역양식이 번성하고 있으며 이 미역양식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식전복 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다시마, 대황, 쿠로메 등의 양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전복양식의 사업화, 사업의 확대화를 위하여 먼바다에서의 규모가 큰 양식시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의 시나 마을과 제휴하여 참돔이나 넙치의 치어를 마을내의 앞바다에서 중간육성과 방류를 하여 자원의 회복에도 힘을 쓰고 있다.

② 살균냉각 해수장치의 도입에 의한 고부가 가치화의 노력

수산물가격의 폭락을 억제함과 동시에 브랜드화를 확립하고 정치망어업의 경영안정화를 목적으로 하여 2001년 8월 초순에 시마네현 내에서 처음으로 ‘살균냉각 해수장치’를 도입하였다.

이 ‘살균냉각해수’의 선도보존 효과는 상상 이상의 것이고 ‘살균냉각해수’로 처리된 선어는 시장에서도 큰 평가를 얻고 있다.

따라서 이 도입사업은 단지 선도보존을 위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선도를 보존할 수 있을까를 생산자인 어업자가 생각하여 어업협동조합과 일체 되는 노력을 보였다는 것에 큰 평가 있다고 생각된다.

③ 어업연구회의 활동

시마네정에서는 정치망어업 이외에도 오징어낚시어업이나 미역 등의 양식어업도 번성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자로 구성된 어업연구회가 조직되었다.

오징어 낚시를 주로 하는 어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한줄낚시 연구회」는 선진지 시찰 등 어획량과 양류량의 증가를 위한 정보수집을 하는 한편 얻어진 정보·기술 등을 마을내의 회원을 비롯하여 관계 어업자에게 주지시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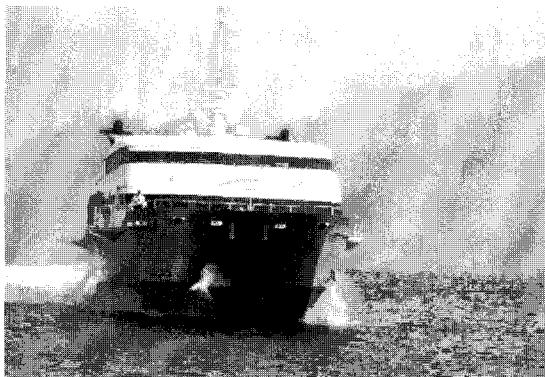
또 미역양식이 번성한 지구의 어업종사자로 구성된 「어업연구회」에서는 미역 종묘생산 등을 공동작업하면서 마을의 방류사업인 참돔 치어의 중간육성도 맡아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어업종사자 상호간의 제휴를 받아들 이면서 수산업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각종 이벤트(교류형 사업)의 실시

시마네정은 기간산업으로서 어업에 의지한 것이 크고 위의 예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래의 대규모에 달하는 자원의 고갈화,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수산물가격의 폭락, 어업종사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시네마정의 아름다운 자연과 마츠가와시(松江市)에 가까운 점, 그리고 오키도(隱岐島)와 본토를 잇는 초고속선 「레인보우 2」의 기항지라고 하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인구교류형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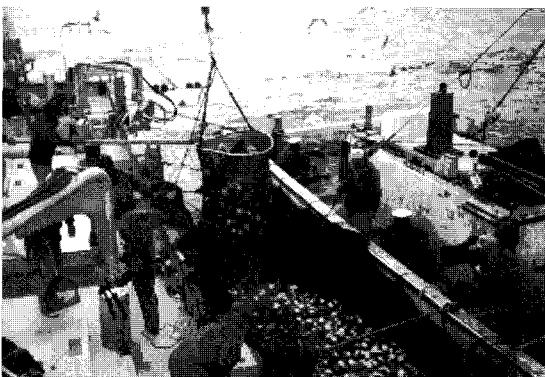
〈사진-3〉 초고속선 레인보우 2

① 관광정치망

초고속선 「레인보우 2」의 기항지인 사가어항을 본거지로 하는 「우마시마대부(馬島大敷)」의 정치 망선에 승선하여 웅장하고 호쾌한 일본해의 정치 망어를 견학, 갓 잡아 올린 신선한 제철 고기를 선물로 가지고 돌아가기를 바란다.

아직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승선객 수는 적고 반응도 미약한 상황이나 「대단히 즐거웠다」「감동적이었다」「또 타고 싶다」 등의 승선객의 반응에 다시 찾아올 승선객을 포함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금후는 정내의 민박 등과 협력하여 서비스 내용의 향상·충실을 지향하고 사업의 진흥과 확충



〈사진-4〉 관광정치망

을 도모할 것이다.

② 새벽어시장

정내에서 양륙된 선어의 홍보를 목적으로서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새벽어시장'은 정치 망으로 그 날 아침에 잡은 신선한 고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어 부근의 시나 정에서도 많은 소비자가 방문한다.

이 '새벽어시장'은 시마네정 어업협동조합이 매년 4월 상순에서 11월상순까지 일요일마다 열고 있기 때문에 노나미(野波)어항 하역장이 아침 8시30분부터 마린숍 시마네가 아침 9시부터 2개 소에서 시간을 피해서 열려 제철의 많은 고기가 30분도 되지 않아 다 팔린 정도로 성황이다.



〈사진-5〉 새벽어시장

③ 스쿠버ダイ빙

시마네정의 관광 주역으로 주목을 모으고 있는 것이 스쿠버ダイ빙이다.

시마네정의 북단에 위치한 집락 「오키도마리(沖泊)」에 있는 「프렌즈(friends)시마네」를 거점으로 초급자부터 상급자를 위한 것까지 정내 26개소에 이르는 다이빙 스포트를 전속 기술지도원이 소개·안내한다. 또 경험과 희망에 따라 여러 가지 코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뿐 아니라 자격증 취득, 연수 등 다양한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

「이런 곳에 정말로 산호가 있어요?」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ダイ빙 스포트에는 수십종에 이르는 아름다운 산호의 세계가 전개되고 있으며 거기에 생식하는 여러 가지 색의 고기들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프랜즈 시마네」의 홈페이지에는 상세한 정보와 함께 많은 수중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바닷속 모습이나 생물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town.shimane.jp/friends-shimane>」



〈사진-6〉 체험ダイ빙

④ 바다의 거리 섬머 페스티벌(summer festival)

매년 6월 초순 토요일과 다음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개최되는 이 이벤트는 1일째 「가츠라지마(桂島) 아웃도어(outdoor) 페스티벌」이라 칭하고 해수욕장과 캠프장인 사가의 가츠라지마를 주 회장으로 하여 포장마차촌의 개설, 카누의 시승회, 아웃도어 쿠킹교실, 때로는 라이브쇼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방문자를 즐겁게 하고 있다.

2일째는 「마린게이트(marine gate) 페스티벌」이라 칭하고 시마네정의 현관입구인 마린게이트 시마네를 주 회장으로 하여 이미 페스티벌의

인기 상품으로 된 오오나베(大鍋) 아라스프 서비스, 포장마차촌, 사가의 관광유람선 등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무대위에서는 향토예능의 피로, 라디오의 인기방송 「힐 사이드 아베뉴」의 공개녹음과 토크쇼와 라이브쇼도 열려 많은 관중을 매료시키고 있다.

종반에는 무대에서 홍백의 떡을 던지는 「떡 던지기」, 호화상품의 빙고대회도 있어 성황중에 막을 내렸다.

이틀간에 걸친 이벤트에는 정내·정외로부터 대단히 많은 인파로 북적거렸고, 「바다의 길 시마네정」을 홍보하여 좋은 인상을 남겼다.



〈사진-7〉 섬머 페스티벌

⑤ 후레아이 페스티벌

추계에 시마네 정민 체육관 주변을 회장으로 하여 행하는 이벤트로 옥외에서는 신선한 선어를 비롯 정내의 특산품이나 정의 상공회 청년부에서 문을 연 오뎅집, 꼬치구이집 그리고 프리 마켓 등 다채로운 모임이 개설되고, 옥내에서는 정내의 노인회 회원이 제작한 도예전, 다실(茶室) 등이 개최된다. 또 체육관에서는 오전중 스리·온·스리대회, 스트라이크 아웃 등이 행해져 초등학생부터 젊은이들로 북적거렸고, 오후에는 무대위에서 정내 유지에 의한 노래나 춤, 춘극까지

많은 관중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이 이벤트 회장에서는 쇼핑 등으로 지불한 금액에 따라 추첨권을 받아서 호화 상품이 당첨되는 추첨회가 마지막에 개최된다.

이 이벤트도 하루종 정내·정외로부터 많은 인파로 북적거려 그 이름과 같이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장소로 되고 있다.



〈사진-8〉 후레아이 페스티벌

⑥ 기 타

사바(佐波)지구부터 노나미(野波)지구간에는 「체리 로드」라 불리우는 약 5킬로미터에 미치는 벚꽃 가로수가 있고 봄이 되면 도로 주변에 심어진 700 그루의 왕벚꽃나무가 피어 아름다운 해안선과 면담들을 배경으로 멋진 대조를 그려내고 있다.



〈사진-9〉 체리 로드의 벚꽃

그리고 벚꽃의 개화상황에 맞추어 4월 일요일에 개최되는 벚꽃축제 때에는 정외에서 많은 꽃 구경객으로 체리 로드는 북적거리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모래사장에 휴게실 등이 정비된 소파(小波)해수욕장과 가츠라지마(桂島)해수욕장이 있고 그러한 해수욕장에 각각 캠프장도 병설되어 있고 해수욕장의 오픈과 동시에 현 내외로부터 많은 해수욕객이나 캠프를 즐기려는 그룹으로 북적거린다.

그리고 시마네정·가시마정(鹿島町)·미호노세키정(美保關町) 및 3정내의 전어업협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시마네 반도지역 마린 카르데 이베이션 구상추진협의회」는 시마네 반도지역의 수산업을 핵으로 하는 지역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고 연 1회 「시마네반도 특산품시」(2002년도는 2002년 12월 1일의 일요일에 마츠에(松江)에서 개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벤트는 시마네반도의 특산품인 「소라의 따기」, 「게 스프의 무료서비스」를 비롯, 각 어협의 선어판매나 3정의 특산품의 판매 등이 행해진다.

이 「시마네반도 특산품시」에는 매회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려 지역의 홍보에는 절호의 기회이다.

5. 끝맺음

이상 기술한 바와같이 시마네정에서는 연간 여려 가지 인구교류형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것에 의한 현 내외의 인지도도 서서히 높아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반도의 선단구역에서 「다카바나(多古鼻)공원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시마네정의 관광매력인 「바다」를 느끼면서 자기만의 아웃도어 라이프가 창조될 수 있도록 오토 캠프장 등을 정비하였으며, 이것에 의해 보다 많은 교류인구의 증가로 새로운 지역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